

‘안철수 신당’ 이미 준비 중...복잡해지는 보수통합 시나리오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를 둘러싸고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본격화되면 중도보수 진영의 정계개편 논의는 다수 정당 간 이합집산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안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보수통합 논의를 하는 쪽에서도 통합 논의가 2월 초

“2월 초에나 거취 정할 듯”...창당 준비 작업 진행 중
바른미래 복귀 가능성도 남아...손학규 결단 오리무중

에 결론이 난다고 말한 만큼 1월에 당장 안 전 대표가 어디에 동지를 들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2월 초에나 거취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들의 말을 모아보면 이미 창당 준비 작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계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명을 바꾸고 하는 것 (신당 창당 절차)은 일주일이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르면 신당 창당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200명,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야 한다. 또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각 시도당에는 1000명씩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 창당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여전히 자신의 행보에 여러 가능성을 남겨뒀다.

보수진영에서 진행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해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혁동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바른미래당의 전신)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만큼 당에 대한 애정이 깊고, 그를 지지했던 당원들 모두 바른미래당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손학규 대표는 여전히 당 대표직을 사수하고 있다. 당초 안 전 대표는 15일 귀국을 예정했

지만, 손 대표 측에서 환영행사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귀국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첫 메시지를 손 대표 측 인사들과 함께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안 전 대표 측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승민-안철수 연합으로 총선을 치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월이 다 돼서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신선도가 떨어지는 안 전 대표의 신당이 과거 국민의당 같은 과급력을 갖긴 어렵다는 이유다. 결국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행보는 신당 창당과 보수 통합 논의가 윤곽을 드러내는 2월 초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호 기자

돌아온 이낙연 “당 떠난 적 한번도 없어...당과 상의해 역할”

여의도로 돌아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5일 총선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철저히 답을 아끼면서 당의 결정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지사 재선출된 후 한동안 여의도 정치권을 떠나있었던 이 전 총리에게 당에 연락을 시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전날 국무총리직에서 내려온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당 복귀를 신고하고자 국회를 찾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전 총리에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렸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맡을 역할에 대해선 “당과 상의하며 결정될 것 같다”며 “선거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 그 일부로서 뭔가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한 “당에서 어떤 역할을 주문할 것인지가 나올 때까지는 서두르거나 독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철저히 당과의 협의를 통해 맡게 될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에 대한 애정도 듬뿍 드러냈다. 그는 복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당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당과 물리적 거리가 있

었을 뿐 마음의 거리는 한번도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이 전 총리의 역할을 기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환영식을 열었다. 최고위원회에 앞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모여 이 전 총리의 여의도 복귀를 환영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갑개가 무량하다”며 “지사와 총리로 일하면서 떨어져 있던 당에 6년 만에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준 이 대표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으로서선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국무총리의 경험과 지식, 경륜을 바탕으로 당에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총리를 지내신 분은 당에서 상임고문으로 모시게 되는데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 핵심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총리의 서울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총리 역시 종로 출마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청년 시절 제일 많이 산 곳이



당에 복귀한 이낙연 전 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종로였기에 추억도 많이 있다. 제 청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학교도 종로구에 있었다. 시골뜨기로서 종로에 산다는 꿈 같은 것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 출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종로 출마가 확정됐느냐”는 물음에 “그것 역시 확정 주체는 당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박지원 “이낙연 종로 출마하면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

“빅매치 성사시 이낙연 압승”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로 (총선 출마를) 굳히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배짱이 없어서 못나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가 종로로 굳힌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로 기울었으면 좋고,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한다면) ‘빅매치’가 돼서 이낙연 전

총리가 압승을 하리라고 본다”고도 전망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을 기본으로 해서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의 통합은 보수대통합이고 이미 보수로 회귀했기 때문에 우리(대안신당)가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1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와 국회의원, 총선 출마 예비후보 등이 1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세력 통합을 강조하고 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경환 “제3세력 통합, 총선 승리로 개혁정권 재창출”

“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15일 “제3세력 통합을 통한 총선 승리로 개혁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은 당시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4+1개혁연대가 없었다면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없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군건한 개혁연합, 개혁벨트가 만들어질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과제를 성공할 수 있고 개혁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님, 그리고 무소속의 호남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제3세력의 통합은 국회에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정치에서는 정치경쟁체제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대안신당은 김대중 정신의 온전한 계승자로, 5·18광주정신의 충실한 실천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4·15총선에서 대안신당이 주도하는 통합된 개혁통합세력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며 “호남에서 정치경쟁체제를 만들어 호남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지역정치도 발전시켜 나가자”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대안신당은 중도개혁적인 제3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세워 나가겠다”며 “광주와 호남에서 일당 독식을 막아내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